

굿모닝인천

JANUARY 2021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25

01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

2021.01 | JANUARY

4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송도국제도시 일출

밤

김소월(金素月 : 1902~1934)

홀로 잠들기가 참말 외로와요.
맘에는 사무치도록 그리워 와요.
이리도 무던히
아주 얼굴조차 잊힐 듯해요.

벌써 해가 지고 어둡는데요,
이곳은 仁川에 濟物浦, 이름난 곳,
부슬부슬 오는 비에 밤이 더디고
바닷바람이 춥기만 합니다.

다만 고요히 누워 들으면
다만 고요히 누워 들으면
하이얗게 밀려오는 봄밀물이
눈앞을 가로막고 흐느낄 뿐이아요.



1920년대 완공된 월미도 돌제(출처:화도진도서관)

홀로 잠들기가 외로운데 그것도 참말 외롭단다. 더군다나 특유의 여성적 화자의 말투로 ‘외로와요’ 하고 있다. 소월은 인천엔 왜 왔는가? “삼수갑산 나 왜 왔노”(“차 안서 선생 삼수갑산 운”) 자문하듯 탄식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인천 그 제물포가 왜 이름난 곳인가?
이 시는 시집 <진달래꽃>(매문사, 1925)에 수록되었지만, 처음 발표는 1922년 2월 <개벽> 20호에 제목도 ‘밤, 제물포에서’로 게재되었고 시의 본문도 일부 개작되었다. 1922년이면 소월의 나이 20. 스물의 청년 소월은 인천엔 왜 왔는가?
1920년대 인천은 어떤 곳이었나, 알아보기 바란다. 홀로 잠들기가 참말 외로우면.
(관련기사 54쪽)



01

JANUARY
2021
Vol. 325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1년 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
인쇄인 신봉훈(소통협력관)
편집인 백상현(소통기획담당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편집장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임학현·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CONTENTS

〈굿모닝인천〉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10년의 시작, 새로운 <굿모닝인천>과의 만남. 1994년부터 시민 곁을 지켜온 <굿모닝인천>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태어납니다. 시민 생활 접점의 다양한 정책을 흥미롭게 전달하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다채로운 소식을 담겠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시인 김영승의 문학 해설 ‘김영승의 시선(詩선)’,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감성적으로 풀어내는 ‘포토 에세이’는 바쁜 생활 속 작은 힐링이 될 것입니다. 인천 출신 유명인을 찾아가는 근황 인터뷰 ‘그간 잘 지내셨나요?’는 인천 사람으로 살아온 진솔한 삶의 기록입니다. ‘환경특별시 인천’ 코너는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천의 청사진을 시민과 공유할 것입니다. 도시 곳곳 자리한 인천의 문화재를 현장탐방해 내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인천 문화재를 찾아서’도 살아 숨쉬는 신년기획입니다. 새로운 10년의 시작 앞에 선 <굿모닝인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04	인천 미소	건강한 한 해를 꿈꾸며 外	40	이미지 뉴스	탄소 중립
05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계양경기장	42	시정 뉴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 만들기’ 본격 추진 外
06	신년 인사	시장 메시지 / 의장 메시지	44	의회 뉴스	‘사랑의 쌀’ 기부금 전달 外
08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① 만석동	48	컬러링 인천	덕적도
14	새해 아침	신년 특집 대담	50	인포 박스	코로나19 방역 수칙 안내 外
18	정책 만화	2021 새해 달라지는 정책	54	인터뷰	김영승 시인
22	*환경특별시 인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 자원순환 실천하는 사람들	55	*인천 문화재를 찾아서	일본제18은행 인천지점
28	*자원순환 Q&A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56	소소한 인천 이야기	참외전거리 外
30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⑧ 정성항공과학교등학교	57	仁生 사진관	2021년, 희망 신고 열차 출발합니다
34	*그간 잘 지내셨나요?	① 김흥탁 키보이스 리더	58	인천의 아침	짜장면 탄생 130년
38	1월의 도시전	송암미술관 민화 특별전 外	59	*포토 에세이	2021 신축년 해돋이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건강한 한 해를 꿈꾸며

2020년은 무엇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2021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활기찬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굿모닝인천>에 다양한 건강 정보가 연재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시민들의 삶이 더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 서영배 강화군 강화서로

보다 풍성한 2021년을 기대합니다

1년 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이 됐습니다. 조금은 생소했던 도시 인천을 <굿모닝인천>을 통해 흥미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지면으로나마 인천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2021년에도 보다 풍성한 내용으로 멋진 도시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 우민정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자랑스러운 인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을 살다 보면 귀감이 되는 인물들의 스토리에 큰 감동을 얻곤 합니다. 인천에도 자랑스러운 인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지만 시민들이 잘 모르는 인천의 인물을 비롯해 스포츠와 문화·예술, 방송·연예계 등 현재 저마다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천을 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김미경 동구 셋골로

반짝반짝 바다 위 보물들

인천 하면 섬이 아닐까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천의 섬들이 더욱 주목받는 한 해였습니다. 저마다의 섬이 지닌 역사와 특징, 섬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언젠가 ‘인천의 맛’에 등장했던 벌버리묵처럼, 섬에서 맛볼 수 있는 숨은 음식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마음 놓고 섬으로 여행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차춘식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계양경기장



글 전보혜(계양구 작전동)

다시, 짜릿한 스파이크

매년 겨울, 프로배구 시즌이 되면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계양 경기장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남자 배구 대한항공 점보스와 여자 배구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양경기장은 프로배구의 성지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새롭게 준공된 덕에 경기장 환경과 시설 면에서 전국 최고로 손꼽힌다. 인천 팬들의 열정도 대단하다. 탁월한 인프라와 팬들의 성원, 선수들의 활약이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져 2016~2017 시즌에는 인천 연고 남녀 두 배구단이 동반 우승을 차지하는 엄청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제아무리 열광적인 스포츠도 온 세상을 집어 삼킨 코로나 19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2020~2021 시즌은 개막부터 무관중 경기를 치러야 했다. 인천시와 시민들의 노력 속에 사회적 거

리 두기가 잠시 완화됐을 때 경기장을 찾을 수 있었지만, 수용 인원의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제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천 연고 프로배구단 두 팀은 최상위권 성적을 올리며 TV와 온라인을 통해 응원하는 인천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여자 프로배구 2020~2021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오프 시즌 기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최고의 배구 여제이자, 세계 최상급 공격수로 인정받는 김연경 선수의 복귀 뉴스였다. 자연스레 배구 팬들의 관심이 계양경기장으로 쏠렸다. 1월 현재,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줄곧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점보스의 이름도 순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늘 위기 때마다 국민들에게 힘을 준 것은 스포츠였다. 머지않아 짜릿한 스파이크 한 방에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지를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시장 메시지

누군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친환경특별시’ 인천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침 해가 눈을 녹이듯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해진다면 좋겠지만, 야속한 감염병의 먹구름은 아직도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해입니다.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노력이 불러온 새 해입니다.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이뤄지는 2021년을 기원합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인천시가 과잉 대응하면 시민은 안전하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확진 환자 발생을 막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지 않은 시정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널리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먼저, 수십 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과거의 숙제들을 풀어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을 80여 년 만에 시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20년을 끌어오던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공원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하나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도 수많은 난관을 뚫고 14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도록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을 1년 내내 10%로 유지했습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안전망, ‘인천 복지기준선’을 마련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교통 체계의 혁신을 이뤄냈고, 원도심과 섬 지역의 생활 여건도 개선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일 또한 소홀함 없이 진행했습니다. 바이오산업 분야의 인재들을 키우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창업의 요람이 될 ‘스타트업 파크’에도 많은 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인천은 코로나 이후 새 시대를 열 도전자들이 모여드는 기회와 성공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경제를 되살리고 일상을 되찾는 회복의 과정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가 대한민국에 던졌던 ‘친환경 자원순환’ 의제를 실현하는 일 또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자원순환은 더이상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맞닥트리게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열과 성을 다해 시민 여러분께, 또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친환경특별시’ 인천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소는 늘 묵묵히 일합니다. 새해에 저와 우리 인천시 모든 공직자들은 묵묵히 자갈밭을 일구는 소, 석전경우石田耕牛가 되겠습니다. 밭을 가는 흰 소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 시장



의장 메시지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품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변화와 희망의 원동력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도 오직 시민 여러분께서 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견뎌내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과 공동체 정신으로 연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 중심 민생과 경제 회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지부진했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 축설계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본계약을 이끌어냈고, 81년 질곡의 역사를 품은 부평 캠프마켓 개방과 제3연륙교 착공, 바이오공정 전문 인력양성센터 유치 등을 이뤄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상임위원회로 개편해 재정 부문 검증 기능을 강화했고, 정책 및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에 대한 신규 정원 또한 확보했습니다. 스마트 의회 구현을 위해 연내 사업 추진을 목표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능률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왔고 14개 의원연구단체의 열정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축년 새해를 시민 여러분에 대한 보답의 원년으로 삼아, ‘사람 중심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지원에 더해 지역사회와 주민을 잇는 이음플랫폼 기능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지역 특화형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실현되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은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과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첫걸음이 ‘2025년 쓰레기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 선도 도시 인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시의회는 300만 인천 시민과 미래 세대를 바라보며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며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계획된 일들이 시민의 참여 속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의 자세로 시 정부 및 교육청과 손을 맞잡고 지혜를 내고 마음을 모아 담대히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21년 새로운 희망을 품은 인천시의회의 발걸음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사
란,

공장 품은
부둣가에 스미다



취재 영상 보기



만복유통 16×24(cm) pen, watercolor on paper 2020

만석부두 가는 길의 구멍가게.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한 가족의 70여 년 삶이 흐른다.

‘인천, 그림이 되다.’ 낯은가 하면 새롭고, 평범한가 싶으면서도 특별한. 골목길만 지나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도시, 인천. 추억이 그리움으로 때론 일상으로 흐르는 공간이 작가의 화폭에 담겼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붓 터치를 따라, 인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첫 번째는 고제민 작가의 손끝에서 피어난 만석부둣가 동네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공장지대 한복판에, 살다

— 일곱 남매는 공장지대 한복판에서 나고 자랐다. 인천 판유리 공장, 동양방직(동일방직), 한국기계(두산인프라코어), 대일목재 등 거대한 공장으로 둘러싸인 바닷가.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불빛을 따라,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모여들던 동네다. “1960~198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를 이끌던 역사적 중심지예요. 일과 사람이 넘치던 곳이었지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집 앞을 지나 공장으로 출근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일곱 남매 중 여섯째, 박상문(60) 명문미디어아트팩 대표(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는 만석부두 일대가 북적이던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다. 거대한 공장들을 품은 바닷가에서 태어나 살며 그의 꿈도 자라났다.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던 제염 공장의 굴뚝은 ‘나만의 침성대’였고, 유리 공장 타워 탱크는 ‘나만의 우주선’이었다.



1 나고 자란 고향집을 지키는

만복유통의 막내아들 박상훈 씨.

2 아버지의 손때 묻은 낡은 장부.

그의 꿈과 젊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만석부두 가는 길에 있는 ‘만복유통’이 그의 가족이 살던 집이자 삶을 일궈내던 일터였다. 1970년대 이곳은 만석동에서 몇 안 되는 쌀가게였다. 빵이며 담배며, 이 일대 구멍가게에 물건을 대주는 도매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첫째, 둘째, 셋째 개 뚝… 그리고 끝 집.’ 북성포구에 미로처럼 이어진 횃집들을 이르던 아버지만의 ‘암호’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때 묻은 낡은 수첩엔 그의 꿈과 젊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아버지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주물 기능공이었다. 이전전기(일진전기)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묵묵히 번 돈을 가게에 쏟아부었다. 자식들 잘 가르치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일했다.



만복유통 옥상에서 박상문 씨.
1973년 재건축한 건물로 당시 보기 드문 이층집이었다.
이 일대에서 원형을 간직한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다.



만석부둣가 마을 26×36(cm) watercolor on paper 2016

만석고가교 아래, 실향민 고 이치선이 지은 이층집.
70여 년, 실향민과 부둣가 노동자들에게 구들을 내주었다.

그러면서도 ‘아들딸들 집 하나씩 사줬으면 좋았으련만, 그걸 못해 미안하다’라고 수첩 한편에 못다 한 말을 털어놓았다. 세상 모든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리라.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1974년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가세가 기울었다. 아버지는 퇴직금을 미리 받고 재산을 처분하며 빚을 갚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이 집만큼은 끝까지 지켜냈다. 인천에서 스스로 일군 첫 번째 자산이자, 자식들이 나고 자란 집인 까닭이다. 오늘 이 집을 지키는 건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극진히 모신 막내 박상훈(58) 씨다. 그는 17년 전 “일주일만 가게를 봐다오”라는 아버지의 청을 마다할 수 없어 고향집으로 왔다. 그때 부모님의 나이는 이미 70대 후반이었다. 그 작아진 뒷모습이, 결국 그를 이 자리에 머물게 했다.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쉽 없이 움직이던 이곳의 시간은 지금 느리게 흐른다. 사람들이 떠나고 가동을 완전히 멈춘 공장도 있다. 하지만 70년 가까이 나뭇의 이야기를 지켜온 한 가족의 터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건물 그대로예요. 시간이 흐르면, 이 집도 언젠가 사라지겠지요.” 공간도 기억도 유한하다. 허나 그 시간은 이 공간에 머무른 사람들의 가슴 깊숙이 온기 어린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낮선 땅, 어머니의 바다

— 산도 들도 없이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거대한 공장에 둘러싸인 척박한 동네. 하지만 만석동 사람들에게겐 바다가 있다. 그 바다는 고향 떠나 갈 곳 잃은 사람들도 기꺼이 품어주었다.

6·25전쟁 때 북에서 떠밀려 온 사람들은 동구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에 터를 잡았다. 만석고가교 밑에서 굴을 파는 김선비(81) 할머니는 아홉 살에 황해도에서 피란 와 열다섯 살에 인천으로 왔다. 생을 구했으니 먹고살아야 했다. 아버지가 부둣가 조선소에서 목선을 만들어 거친 바다, 삶의 최전선으로 떠나보냈다. 그 배에 예닐곱 명이 올라타 서너 시간 노를 저어 섬으로 갔다. 거센 물살을 헤치고 다다른 석화石花 밭에서, 억척스럽게 갯벌에 뒤엉켜 바위에 붙은 굴을 쪼아냈다. 비바람이 불어도 육지로 돌아가지 않고 며칠이고 머물렀다.

‘굴 직판장’으로 오기 전엔, 지금은 스러지고 없는 만석부둣가 공장 담벼락에 기대어 있던 굴막에서 캐 온 굴을 작업했다. 집이라고 할 것도 없이 판자를 대고 거적땀기를 깔아 지은 웅색한 움막이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도 굴을 줬다. “배고파서 힘든 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지.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은 다 극성맞아서 배는 안 굶고 살았어.” 할머니가 투박한 손길로 칼질을 할 때마다 탐스러운 굴이 맨살을 드러내며 양동이에 척척 담긴다. 평생 물이 마를 날 없던 손은



굴 직판장 2번 굴막의 김선비 할머니.
만석부둣가엔 자식들 위해 손이 부르토록 굴을 만져온 어머니의 세월이 흐른다.(왼쪽)

고 이치선의 이층집.
오래된 나무 기둥이 긴 시간을 비밀스레 간직하고 있다.(오른쪽)



만석부두 선박수리소 24×32(cm) pen on paper 2020

만석동 바다는 배의 일생까지도 넉넉히 품어준다. 공장지대를 깊숙이 파고들어 만나는 후미진 바닷가. 그 안에선 선박이 새 숨을 트기도, 생을 다한 배가 마지막 지친 몸을 뉘기도 한다. 때론 더 큰 바다로 항해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아픈 몸을 치유한다.



‘대한 조선소’의 신재이(66) 선박 수리공.
만석동 일대 선박 수리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1970년대부터 배를 고치고 매만져왔다.(오른쪽)



갈라지고 터지다 이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고향 떠나 줄곧 바다 곁을 떠난 적이 없으니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으랴. 나이 든 어머니는 오늘도 단단한 석화 속에서 뽀얗게 영근 삶의 희망을 캔다. “생이 끝날 때까지 해야지. 이 일은 없어지지 않아.”

만석동 바다는 배의 일생까지도 넉넉히 품어준다. 공장지대를 깊숙이 파고들어 만나는 후미진 바닷가. 그 안에선 선박이 새 숨을 트기도, 생을 다한 배가 마지막 지친 몸을 뉘기도 한다. 때론 더 큰 바다로 항해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아픈 몸을 치유한다.

여기는 인천 판유리 공장 부지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대한 조선소’. 배를 새로 짓지는 못해도, 여객선이든 화물선이든 고장 난 그 어떤 배도 척척 수리해 낸다. 신재이(66) 씨는 만석부두에 한창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지던 1970년대에 선박 수리 일을 시작했다. 원래 금형 기술자였다, 친구가 기계에 손을 잃는 것을 보고 잠시 다른 일에 손댄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1980년대까지도 만석동 일대의 선박 수리업은 전성기를 누렸다. 배를 열 척, 스무 척씩 dock에 얹히고 기술자 40~50명이 달려들어 고치고 매만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다시 채워지지 않았다.

“사정이 전성기 때나 대형 조선소만은 못해도 ‘참, 잘 살고 있다’ 싶어요. 양복 걸치고 넥타이 매고 일하던 친구들은 다 정년퇴직했는데, 나는 여태 내 힘으로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서 평생 먹고살게 한 일터와 기술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이 묻어난다.

육지로는 꿈을 찾아 전국에서 온 노동자를, 바다로는 고향 잃은 사람들을 품어 안았던 동네. 그 품에서 땀 흘려 움직이는 만큼 아름다운,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들. 바다와 땅, 깊은 시간과 오래된 삶이 씨실과 날실로 엮이듯 한 폭의 풍경화로 펼쳐진다.



그림 고제민

고제민은 스스로를 ‘인천 작가’라고 말한다. 그에게 인천은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이자, 창작 욕구를 쏟아붓게 만드는 또 다른 자아이며, 힘겨운 삶을 버텨낸 사람들의 한숨으로 이루어진 검푸른 풍경이다. 현재 인천문화재단 이사로 <인천, 그리다>, <엄마가 된 바다>, <인천 담다> 등을 출판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희망찬 새해를 시작합시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올해는 희망찬 일들로 바뀌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본다. <굿모닝 인천>이 새로운 해, 인천의 미래와 희망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을 대표하는 지식인 지용택(84) 새얼문화재단 이사장과 2020 우현예술상을 수상한 이원규(74) 소설가가 정석빌딩 새얼 사무실에서 새해를 맞아 인천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정리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이원규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소띠 해입니다. 소는 착하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대립하지 않는 동물인데, 새해에는 우리 국민, 우리 인천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전진하는 해, 화목하고 포용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얼문화재단은 시민의 자발적인 출연과 지원으로 창립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인천 정신, 인천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새얼문화재단이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업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춘원단이기도 하니 인천 시민들께 덕담 한 마디 해주십시오.

지용택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글귀, ‘기보치원驥步繼遠’으로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장성의 중국 거상들 내실에 걸려 있는 글귀인데, 천리마는 단지 내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등 위에 탄 사람을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해 모신다는 뜻입니다. 신중하게 사람을 목적지까지 데리고 간다는 의미이지요. 2021년도는 황소처럼 꾸준하게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자는 묵직한 뜻과 함께 천리마처럼 목적지까지 상황에 맞게 모든 걸 조절하면서 도착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당분간 지속될 텐데, 모쪼록 시민 모두 마음을 합해서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이원규 돌아해보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한 해였습니다. 현재 전국이 3차 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은 수도권 중에서 방역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지용택 많은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바뀌어 나갈 겁니다. 바이러스는 의료진이 치료하지만 코로나19는 시민 모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생긴다고 하니, 동네 주민들이 반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반대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1년쯤 지나면 더 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겠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죠?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사회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상식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나 하나라는 이기적



인 생각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지금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원규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망각한 것이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황해’ 이야기로 바꾸어보겠습니다. 저는 1980년대 말에 인천 앞바다 배경의 장편 소설을 ‘황해’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소설에서 황해는 사전적인 뜻으로 한반도와 중국에 둘러싸인 바다이고 서해는 한반도 중심 서쪽에 있는 바다라고 썼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일찍부터 ‘서해’보다 ‘황해’의 의미가 크다면서 세계적인 시각으로 지역을 보고 지역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역사적 전환을 창조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간 <황해문화>를 창간하실 때도 그렇게 천명하셨지요? 그 말씀 좀 더 부탁드립니다.

지용택 오래전부터 황해를 말해왔어요. 서해는 고유명사가 아닌 지역명이죠. 어떤 사람은 ‘황해’ 하면 중국 이름 같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바다를 경영했던 민족은 중국이 아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기 대륙에 관심을 두었고,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바다에 관심을 두었으니까요. 황해를 중심으로 우리는 어디든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말은 일본이 아시아 지역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우리는 ‘환황해 시대’가 되어 장보고처럼 해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황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해보다는 황해가 더 넓은 의미이니 진취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황해 시대’라는 말도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천대교가 처음 설계됐을 때 주경간 폭이 700m였어요. 당시 뜻있는 지도자들과 인천 시민 등 170여 명이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경간 폭을 1,000m로 넓혀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결국 800m로 조정됐고, 그 덕분에 크루즈 같은 큰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늘길도, 바닷길도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 시민들에게는 그러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규 환황해시대의 주역으로서 황해 주변의 역사와 시대를 우리가 역동적으로 끌고 가자는 말씀이시네요. 황해 중심 창조적 전환과 관련해 생각나는 게 ‘해불양수海不讓水’입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포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인천 정신은 해불양수라고 말씀하신 게 벌써 40년 전입니다. 이제는 ‘해불양수’가 인천을 상징하는 가장 정확한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불양수에 대한 생각과 인천이 장차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용택 우리는 지금 개방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기도 우리가 그만큼 발전한 건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진 인천의 특징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1883년 인천이 개항했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건강하기만 하면 인천에서는 일가를 이루고 충분히 먹고살 수 있다’라는 말이 돌았죠. 이런 꿈을 갖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팔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잘 어우러져 살았던 말입니다. 6·25전쟁 이후에도 이북 5도 사람들이 고향과 가장 가까운 곳인 인천에 터를 잡았습니다. 인천은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춘 멋진 도시입니다.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살펴보면 고향이 달라요. 해불양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천은 이처럼 예로부터 꿈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이원규 현재 인천과 우리나라는 미·중·러·일 사이에 끼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인천 개항시대에 관한 장편 소설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이 대한제국 말기와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또 남북 분단은 황해 항구도시 인천의 역할과 위상을 제약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로운 길이고 민족과 국가가 번영할 수 있을까요?

지용택 근래에 젊은 학자들이 고려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와 함께 요나라, 금나라, 몽골 등 북쪽 군사적 강국의 침략을 능숙한 외교와 항전으로 대처했습니다. 강화도에서의 항전 40년을 살펴보면, 우리의 저항 정신과 굳건한 민족 정기가 살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대했지만 내부적으로 특히, 국민 대중은 자기의 주체성을 튼튼히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문화 전반의 뚜렷한 자기 특색을 보존해 왔습니다. 선조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어려운 국제 정세에서 실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원규 이제 인천의 지역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인천은 많은 일들을 풀어왔는데요. 부평 캠프마켓 반환과 개방은 저처럼 노경에 접어든 인천 토박이들에겐 감회가 큼니다. 인천이 ‘쓰레기 독립선언’을 하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방안으로 자원순환을 내세웠습니다. 참으로 적절하고 이상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시민이 박수 칠 일입니다. 또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KTX와 연

계하는 광역철도망과 고속철도망을 구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새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시민 모두가 인천에 사는 것을 긍지로 여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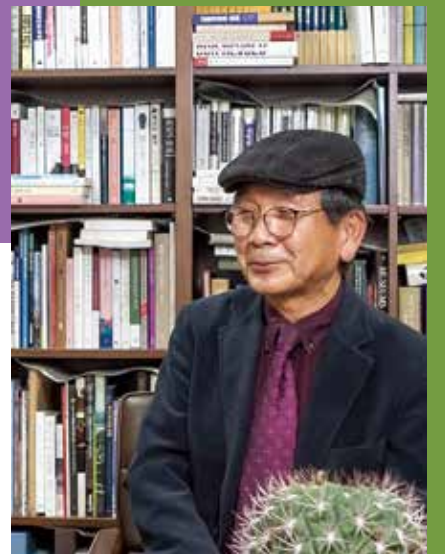
지용택 인천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 저도 참 기쁩니다. 뉴스를 통해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찼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높다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환경 전반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가 4위에서 2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또 서울에서도 인천 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도 모두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미래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해는 좀 더 밝고 희망찬 얘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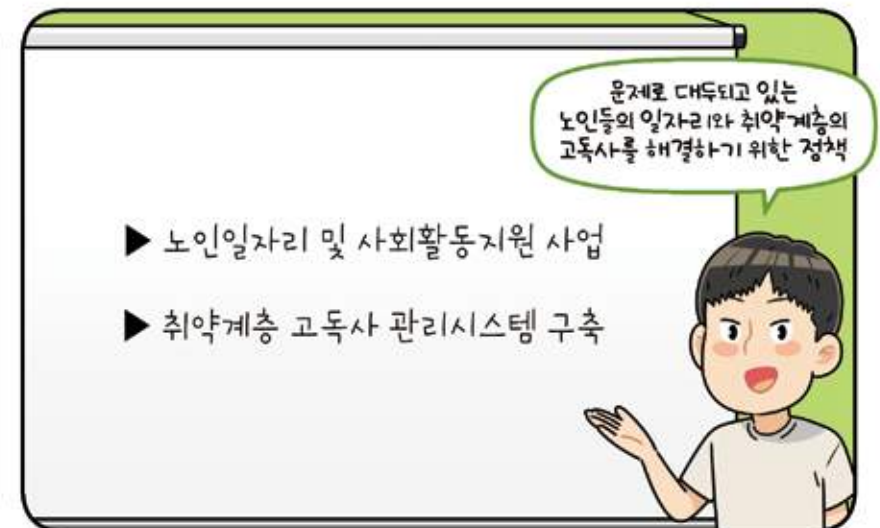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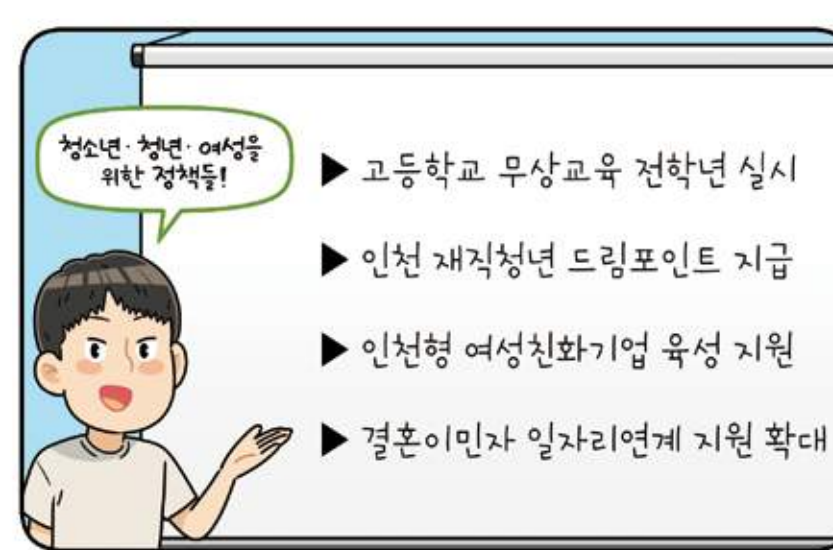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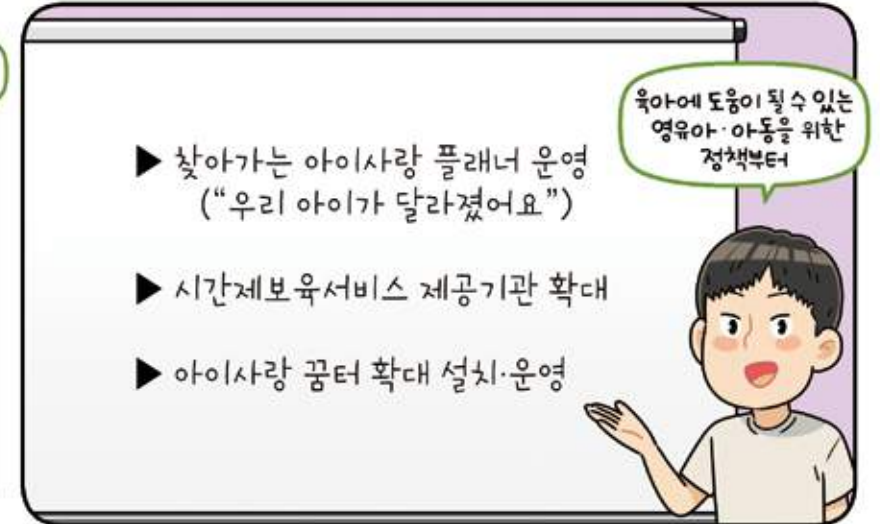
驥步緻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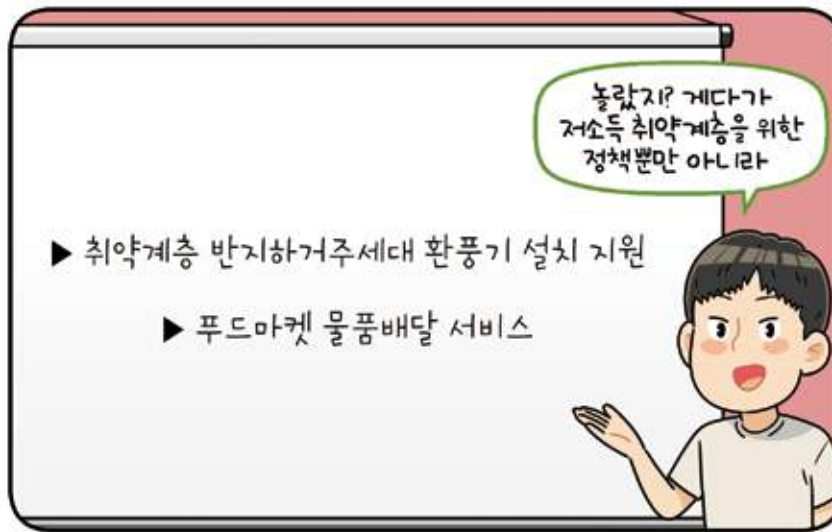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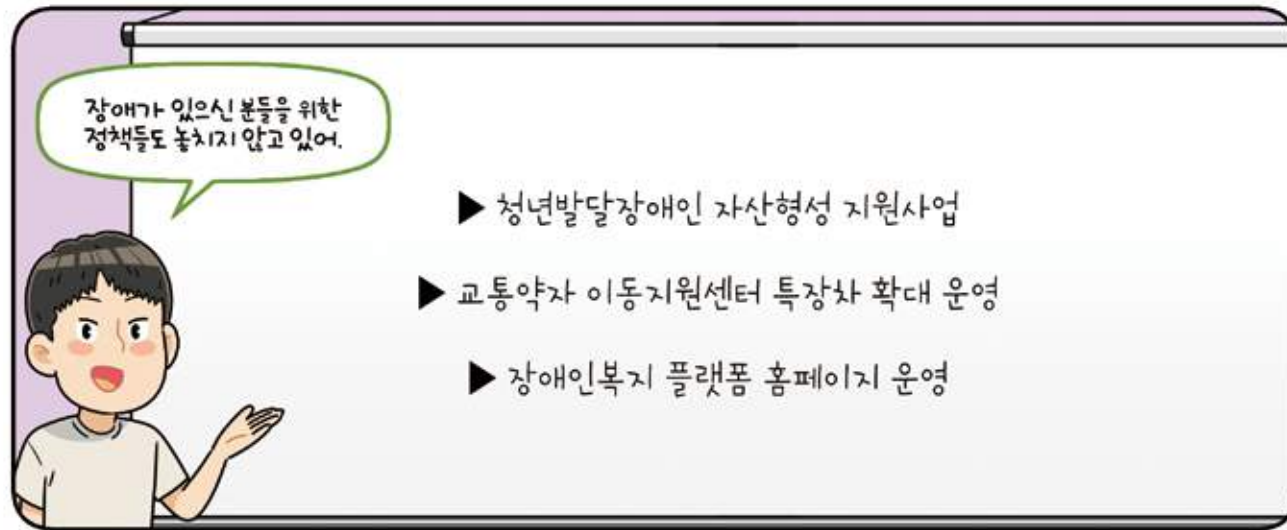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창영초, 인천중, 인천고를 졸업하고, 경희대 법과대학을 명예 졸업했다. 지 이사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며, 새얼문화재단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인천의 자랑거리다. 새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새얼백일장은 전국의 많은 청소년이 참가해 미래 시인과 작가 지망생들이 꿈을 키우는 대회를 자리 잡았다. 또 국악의 밤 27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37회에 이르기까지 음악 공연의 장을 마련해 인천 시민들과 함께했으며, 우현 고유섭 동상,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 석남 이경성 선생 흉상 등을 제작해 인천 시민에게 헌정했다. 현재 지 이사장은 계간 <황해문화> 발행인, 인천하늘교육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 지역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이원규 소설가는 인천고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인천 대건고와 인항고 교사, 동국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인하대, 인천대에도 출강했다. 1984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단편 소설 <겨울 무지개>가, 1986년 현대문학 장편 소설 공모에 <훈장과 굴레>가 당선됐다. 인천 배경 분단 소설을 많이 썼으며 김원봉, 김산, 조봉암, 김경천 등 근현대사의 잊힌 인물들의 평전도 썼다. 1988년 <침묵의 섬>으로 대한민국문학상 신인상, 1990년 장편 <황해>로 박영준문학상, 2016년 장편 <마지막 무관생도들>로 제53회 한국문학상, 2020년 평전 <민족혁명가 김원봉>으로 우현예술상을 받았다.

※ 본 대담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다시 사용하고,
올바르게 재활용하고,
에너지로 만들고

자원순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한 폐기물을 재생 사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처리하는 ‘자원순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할 일로 성큼 다가왔다.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교육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를 찾았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환경 교육의 중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는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환경 교육 시설입니다. 원래는 업사이클upcycle* 교육과 관련한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됐는데, 운영하다 보니 교육 부분의 중요성이 더 커져더라고요. 지금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교육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민(33)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팀장은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등 관련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천시가 2021년부터 자원순환 정책 대시민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는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가 거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저희 센터에서는 인천시



정동민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팀장

자원순환강사 양성과정도 진행했고, 지금 상황은 수도 권매립지와 쓰레기 감축이 필요한 이유 같은 문제의식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위해 영상과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자원순환 교재 개발과 체험 키트를 활용한 현장 교육 위주로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더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업사이클upcycle :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재활용보다 진화된 개념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된 물건에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원순환 교육 키트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가 자원순환 교육에 활용하는 체험 키트는 인하대 창업동아리에서 시작한 벤처 기업인 ‘we-ro’와 협업해서 제작한 제품이다. we-ro가 만든 제품은 폐현수막을 이용한 모자이크 놀이 키트로, 아이들이 키트 안의 여러 현수막들을 이용해 다양한 모자이크 작품을 완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처음부터 놀이 키트를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다회용 재활용 컵홀더를 제작해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 주관한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경진대회(2020 SDG Youth Hackathon)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수상작을 상품화할 수 없을까 고민 끝에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를 찾았죠. 그곳에서 정동민 팀장님이 교육 키트를 제안했고, 저희는 그걸 연구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김상민(25) we-ro 대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사람들을 모두 환경운동가처럼 단박에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대신 중요한 가치를 전달할 수는 있죠.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아이들 놀이 키트로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we-ro는 재활용할 수 있는 PP 현수막이 아닌, 불법 현수막에 자주 사용되는 저렴한 나일론 현수막으로 놀이 키트를 제작한다. 나일론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저희 사업이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환경운동가이자 환경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로

werohada.modoo.at



김상민 we-ro 대표(위)
폐현수막을 이용한 we-ro 놀이 키트(아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는 자원순환에 대한 환경 교육 외에도 센터 내에서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름에 걸맞게 건물 자체도 고효율 기자재, 외단열 시스템 등이 적용된 패시브 건축 요소와 태양열 발전 시스템, 지열 시스템 등이 적용된 친환경으로 지어져 건물을 이용해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 2층에 자리한 물품공유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하지만, 부피가 커서 선뜻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준다. 각 가정의 불필요한 물건 구입을 억제해 버려지는 물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텐트, 앰프스피커, 라돈측정기, 스팀청소기 같은 캠핑용품, 행사용품, 레저용품, 공구 등 다양한 물건들을 갖추고 있다. (www.ishara.or.kr)



위치 :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7
시설 : 전시실, 옥상 텃밭, 물품공유센터, 에코 도서관, 업사이클 놀이터
이용 시간 : 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문의 : 032-212-2929, incheoneco.or.kr



환경특별시 인천

우리 시는 지난해 쓰레기 독립에 이어 ‘쓰레기 자립’을 선언하며, 친환경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며,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진 것인데, 올해는 자원순환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특별시 인천’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 인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례식장과 같이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사용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참여해 일회용품 근절을 인천 전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청을 일회용품 ZERO 공공청사로 추진해 일회용품의 청사 내 사용·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버려지는 자원 없는 청사를 위해 개별 쓰레기통을 없애고 통합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청사 주변 음식점체와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버려지는 것,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싫증 난다는 이유로, 조금 망가졌다는 이유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물건이 버려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고쳐 쓰고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새것을 사는 데 주저하지 않고, 고쳐 쓰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기까지 한다.

그러나 여기, 버려지는 자원에 새 숨을 불어넣어 멋지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활 속에서 업사이클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못 쓰는 국악기를 예술품으로 온고작신溫故作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우리나라의 전통 국악기.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빛을 발하지만 생각보다 그 수명이 짧다. 장구, 팽과리 등의 국악기는 미세한 깨짐과 찢어짐만으로도 수명을 잃어간다. 서광일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대표(53)는 이러한 폐국악기를 예술품으로 만드는 ‘온고작신溫故作新 프로젝트’를 통해 버려지는 악기를 재활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잔치마당은 1997년부터 부평풍물대축제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부평구 600여 명을 비롯해 인천지역에는 1,000여 명이 풍물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버려지는 국악기와 소품이 적지 않죠. ‘옛것을 새롭게 하다’에서 출발한 ‘온고작신’은 옛것을 상징하는 폐품에 지역 시각예술인들의 재능을 더해 새것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찢어지고 낡은 장구는 가죽 위에 물감을 수놓아 멋스러운 예술 작품이 되고, 구멍 난 팽과리는 어느새 시계로 똑딱 변신한다. 폐국악기와 소품에 그림을 그려넣어 탄생한 예술 작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해 수익금 일부를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활용한다. 폐국악기 재생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 직접적인 환경운동은 물론이고 예술·공예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프로젝트인 셈이다.



폐지를 비싸게 삽니다 러블리페이퍼loverepaper

러블리페이퍼는 어르신들이 모아온 폐박스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 수익을 다시 노인 일자리나 복지로 돌려주는 일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어르신들이 수집한 폐지는 고물상에서 1kg에 50원밖에 되지 않는 현실. 기우진 대표(39)는 어르신들의 폐지 수집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세의 6배 가격인 1kg 300원에 매입한다. 이렇게 매입한 폐박스는 페이퍼 캔버스로 업사이클하고, 페이퍼 캔버스는 러블리페이퍼와 협약한 재능 기부 작가들에 의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탄생한다. 작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생계, 안전, 여가, 건강 등을 지원하는 선순환적인 기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폐지 줍는 일을 빈곤 노인이 하는 일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데, 사실 폐지를 줍는 건 일종의 환경운동이에요. 폐지 수집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행위이기에 그에 합당한 지원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자원재생활동가’인 셈이죠.”

그의 바람은 단 하나. 러블리페이퍼가 진행하는 일들을 통해 어르신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어르신들의 삶을 살피고 보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버리기 전에 고쳐서 가치를 높이길 리폼맘스Reformmoms

“대부분 물건값이 저렴하니까 쉽게 버리고 쉽게 사는 경향이 있는데, 고쳐서 다시 활용하고 기존 제품의 질을 높이는 ‘업사이클’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업 ‘리폼맘스’의 윤문정(48) 대표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소신으로 리폼맘스를 이끌어오고 있다. 리폼맘스는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리폼맘스는 전체 일거리의 60%는 리폼 제품을 주문 생산하고, 나머지 40%는 의류 리폼, 수선 서비스, 재활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원단으로 가방을 만들고, 폐방화복을 업사이클하는 레오119와 협업해 관련 제품을 제작해 수익금 일부를 환경 교육 단체에 지원한다.

“물건의 값어치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지 재료가 재활용품이라는 이유로 값어치를 낮게 보는 인식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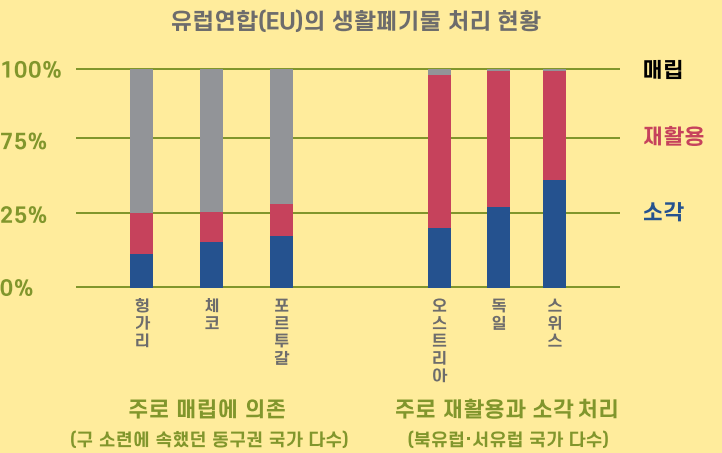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우리 시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여기서 잠깐, ‘자원순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Q&A로 알아보는 우리 시 자원순환 정책의 모든 것.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인천이 열어가는 쓰레기 독립, 친환경 미래가 보인다.

Q1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이유가 궁금해요!



하나. **노상 직매립은 지속 불가능한 후진적 정책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30여 년 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의 쓰레기가 노상에 직매립되고 있습니다. 노상 직매립은 극심한 환경 피해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금지한 정책입니다. 스위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직매립이 아닌 재활용과 소각 중심의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도 2020년 9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노상 직매립 방식은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둘. **시민들이 화답한 우리 시 환경 대개조의 일환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은 오래전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도권 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 집중 등에 따라 땅과 바다, 공기 등 모든 환경이 악화일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600만 명의 쓰레기를 감당해 온 수도권매립지, 한강을 따라 흘러드는 해양 쓰레기를 흡수한 인천 앞바다, 우리 시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영흥화력발전소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5년간 그린 뉴딜에 5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자원순환·대기·물 관리 혁신 등 4개 전략, 77개 과제를 추진해 우리 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조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1위로 선정하며 화답해 주셨습니다.



셋. **쓰레기 처리 도시에서 자원순환 모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이 오기 전, 반드시 우리 시민의 자체 자원순환 처리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 2,600만 명의 쓰레기를 감당하는 ‘쓰레기 처리 도시’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외부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 크게 늘고 있는 우리 시의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자원순환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2015년 대비 우리 시의 2018년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불과 3년 사이 약 1.5배(46%)나 증가했고, 재활용률은 지난 수년간 60%를 밑돌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쇼핑 증가 등의 소비 패턴 변화도 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우리 시가 쓰레기 처리 도시에서 자원순환 모범 도시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입니다.

【예습 안내】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자원순환 Q&A’. 2월에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향후 추진해 나갈 다양한 정책들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가자, 무한한 가능성의 하늘로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허나 그 속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그 여덟 번째 등갯길은 하늘길이다. 공항을 품은 인천의 미래와 꼭 닮은 항공 분야 인재의 산실,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꿈을 향한 날갯짓으로 비상하는 그 길을 황충하 총동문회장(16회 졸업)과 함께 걸었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1980년 2월
황충하 총동문회장 졸업식 때
어머니와 함께



정석항공과학고는 지난해 제21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기관 부문 국무총리상과 개인 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총동문회 김연근 이사, 황충하 회장, 김종찬 교장, 정신석 교감.



걸출한 산업 인재의 요람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 든든한 두 선배에게 호위받듯 자리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는 국내 최초의 항공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다. 1958년 중앙종합직업학교로 개교한 이래, 1962년 한독실업학교, 1978년 인하공업고등학교, 1980년 정석항공공업고등학교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땐 한독실업학교였습니다. 독일의 지원을 받은 터라 실습 기자재의 대부분이 독일산이었어요. 철저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 데다, 학생들도 다들 손재주가 좋아 책걸상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독실업학교. 1961년 우리 정부는 독일과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독일식 우수한 기술 교육이 국내에서 실현됐는데, 그 첫 사례가 인천

한독실업학교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인천의 성공에 힘입어 부산에도 한독실업학교 개교를 지시했고, 이는 부산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성실의 집’.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교정 한편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휘호가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파수꾼이 되리라. 10년간 이어진 독일 정부의 든든한 지원 속에 교사 독일 연수, 졸업생 독일 유학, 실습용 기자재 도입, 교사 신축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그리고 이를 등에 업은 걸출한 산업 인재들이 쏟아졌다.

“이틀 동안 책가방 없이 학교를 다닐 정도로 실습 교육이 많았어요. 기술 하나만큼은 제대로 익힐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고,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자부심이 큼니다.”

국내 유일 항공 특성화 교육 10년

2011년,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 국토해양부 항공 종사자 전문 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을 품에 안은 인천, 그 안에서 미래 항공 인재가 배출되는 선순환의 시작이었다. 항공 특성화 고등학교의 차별화된 면면은 교정 구석구석에서 발견된다. 건물과 이어진 실제 비행기 기체는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1972년 에어버스 인더스트리가 개발한 A300-600R 제트 여객기입니다. 1974년 대한항공이 국내에 도입해 운항하다 퇴역한 기체를 항공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에 무상으로 기부했습니다.”

단순히 이색적인 볼거리에 그칠 일이 아니다. 국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은 국내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실습 무대가 됐다. 실제 학생들은 비행기 이곳저곳을 들여다보며 항공 정비와 관련된 생생한 정보를 얻고 있다.

다른 한편에는 세월의 흔적 짙게 밴 C-45 기종도 전시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초기에 미군이 병력 수송기로 사용했던 비행기로, 국내에서는 1948년 대한국민항공사(KNA, Korean National Airlines)가 도입해 여객용으로 운항하기도 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던 귀한 몸입니다. 졸업 사진 촬영의 필수 코스였죠. 저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준 높은 기자재와 인프라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니 뿌듯합니다. 항공 분야 특성화 학교로 전환된 지 꼭 10년을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대한민국 항공 산업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항공 종사자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는 항공 분야에 특화된 교육 인프라와 인력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있다.



A300-600R 제트 여객기 내부. 1974년 대한항공이 국내에 도입해 운항하다 퇴역한 기체를 항공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미래 항공 산업 강국 인천의 청사진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는 항공정비과, 항공기계과, 항공전자과, 항공전자제어과로 구성되어 있다. 오랫동안 학교에 몸담으며 성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우수한 교사진은 각 학과별로 마련된 실습실에서 현장감 넘치는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 역시 세분화된 전문 교육을 착실히 수행하며 미래 항공 인재의 꿈을 서서히 실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값진 결실을 맺기도 했다. 제21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기관 부문 국무총리상과 개인 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이다. 단번에 이런 성과가 아니었다. 2015~2016년과 2018~2019년 총 네 번에 걸친 우수 학교 선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했다. 2020년도 1팀 1기업 NT 프로젝트 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심화 1팀 1기업 프로젝트 공모전 선정 등의 성과도 마찬가지다. “기술 하나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교, 그 전통을 후배들이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자랑스럽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계가 원하는 인재는 기술만이 아닌,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하늘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그들의 쉽 없는 날갯짓이 인천을 미래 항공 산업 강국으로 인도하고 있다.

정석의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



배우 김영광
SBS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 주연 등 출연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개그맨 홍인규
KBS 개그콘서트, 폭소클럽 등 출연
제11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포토제닉상 예능 부문 수상





인천 내동에서 태어나 동산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김홍탁(77) 씨는 K-pop의 모태가 된 우리나라 록밴드의 시조 ‘키보이스’의 리더였다. 2020년 겨울 김홍탁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연주를 하는 김홍탁 씨

“고향 인천에서 좋은 공연 할 그 날을 기다립니다”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만난 그 사람~’
1960~1970년대를 풍미한 우리나라 최초의 록 밴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바닷가의 추억’은 국민 가요였다. 동네 꼬맹이들까지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김홍탁, 윤항기, 차중락, 차도균, 옥성빈. 20대 초반의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은 기타와 베이스, 키보드와 드럼만으로 우주 같은 음악을 뿜어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이제 막 산업화를 시작하던 시절, 단 몇 분만이라도 보릿고개를 잊게 해주는 대중음악에 국민들은 열광했다. 헌칠한 키에 치렁치렁한 머리, 가죽 장화를 신은 외모도 ‘자유’를 갈망하는 청춘들을 매혹하기에 충분했다. 5인조 록 그룹

키보이스는 그렇게 지금의 케이팝K-pop을 싹 틔운 뒤 대중음악사 속으로 멀어져 갔다. 반세기를 훌쩍 넘긴 지금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굿모닝인천>이 인천 출신의 키보이스 리더 김홍탁(77) 씨를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퍼스트 기타를 연주하며 음악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었다. “요즘 유튜브 방송하느라 바쁘네요. ‘해피밴드HAPPY BAND’ ‘567 엔엘엘NLL’이란 그룹을 결성해 공연도 합니다.” 그는 양평에 무대를 겸한 방송실을 차려놓고 ‘김홍탁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연주와 공연은 물론이고 인터뷰, 다큐 방송에 이르기까지 김홍탁 유튜브는 음악 콘텐츠가 넘쳐나는 음악 전문 방송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었다.

록 밴드 시조, 동산중 2학년 때 신포동 사는 미군 ‘삼고초려’ 기타 배워

우리나라 ‘록 밴드의 시조’ 김홍탁이 태어난 곳은 인천 내동 105번지. 인천내동교회 부근이다. 여섯 살 때까지 내동에서 자란 그는 창영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영종초등학교로 전학을 간다. “1학년 때 6·25전쟁이 터졌어요. 영종도가 할아버지 고향이었는데 전란을 피해 가족이 모두 영종도로 들어간 거죠.” 카키빛 바다 위로 떠 있는 크고 작은 섬들, 적막감 속 간간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바닷새들의 울음. 오감으로 흡수한 영종도의 풍광은 평생 그의 음악적 모태가 된다. 홍탁이 송현동 72번지로 돌아온 건 동산중학교에 입학하면서다. 본격적으로 음악에 눈을 뜬 시기이다. “영종도엔 중학교가 없었어요. 인천으로 유학을 온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5남매의 장남인 내가 안쓰러우셨는지 기타를 사주셨어요. 미국으로 유학 간 삼촌도 기타를 보내주셨고. 그때부터 기타와 한 몸처럼 붙어살았지.” 여섯 개의 줄이 만들어내는 하모니와 각각의 선이 뿜어내는 감미로운 애드리브ad lib. 기타의 음색에 깊이 매료된 사춘기 소년 홍탁은 눈만 뜨면 기타부터 잡았고, 밥먹을 때조차 기타를 안은 채 손가락을 들었다. 컨트리 록과 포크 록만 배워던 홍탁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낯설지만 강렬한 음악이 나타난다. 로큰롤이었다. “로큰롤을



1966년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발매한 키보이스 히트 앨범. 그들은 당시 비틀스의 음악을 번안해 부르면서 한국의 비틀스로 불렸다.(사진 위)

배우고 싶었는데 인천엔 당시 트로트와 클래식 기타 학원만 있었거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놀러 간 신포동 친구 집에서 멋진 기타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2층에 세 들어 사는 미군이 연주하는 기타 소리였지요.” 그 음악이 흑인들이 연주하는 ‘부기우기Boogie woogie’ 주법이라는 걸 알게 된 건 나중이었다. 다짜고짜 찾아와 손짓 발짓 하며 기타를 가르쳐달라는 홍탁에게 미군은 “노No” 하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어떻게든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홍탁은 삼고초려 끝에 허락을 받았고 마침내 1년 6개월 동안 미군으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는다. “그때 배웠던 기타가 고향집 엄마의 집밥처럼 힘이 됐어요.” 미군은 중구 인근 부대에 근무하며 한국 여성과 동거하는 중이었다. 기타와 함께 쑥쑥 성장한 홍탁은 동산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1961년. 동기, 선배들과 함께 고등학생 밴드 캐릭터스Cactus(선인장)란 그룹을 조직하며 리드 기타를 맡는다. 프로 뮤지션의 출발이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친척에게 밴드를 구한다는 얘길 듣고 오디션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합격했어요.” 당시

인천은 에스컴ASCOM(주한 육군지원사령부)이 있어 부평과 신포동에 크고 작은 미군 클럽들이 성업 중이었다. 이역만리에서 군 생활을 하는 미군들에게 유일한 행복은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며 음악을 듣는 일이었다. 객터스는 주말이면 빵모자와 청바지 차림으로 신포동과 부평의 미군 클럽을 오가며 연주를 했다. “어른들이 독일 광부나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고등학생들이 음악으로 달러를 버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군들이 먹는 프라이드치킨과 콜라도 맘껏 먹을 수 있었지요.” 신포동과 부평은 이태원과 비슷한 풍경을 하고 있었다고 김홍탁은 회상했다. 미 8군 무대를 꿈꾸는 전국의 뮤지션들이 인천으로 모여들었는데 ‘대한민국 음악 강패들은 다 인천으로 온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끝없는 도전,
유명세 버리고 미국 음악 유학 후
서울재즈아카데미 설립

홍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윤행기가 멤버로 있던 서울 ‘키보이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 ‘인천에 기타 정말 잘 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김홍탁을 찾은 것이다. 그렇게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록 그룹 ‘키보이스Key Boys’가 탄생한다. 30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 키보이스의 인기는 지금의 방탄소년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미8군 쇼 무대에 서려면 엄격한 오디션을 봐야 했는데 키보이스는 최상위 등급인 더블에이Double A를 한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 첫 히트곡 ‘정든배’를 필두로 전국의 미군 부대를 누비는 동안 ‘대한민국의 비틀스’라는 명성까지 얻게 됐다. “하루아침에 유명해진다는 얘기가 있지요? 우리가 그랬어요. KBS 방송 출연까지 거절할 정도로 바빴으니까.” 당시는 야간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키보이스는 유명세 덕분에 ‘야간통행증’을 발급받는 특혜까지 누린다. 그렇지만 김홍탁의 마음 한편엔 늘 새로운 음악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렸다.



“내 고향 인천에서 큰 공연을 한 번 하고 싶어요.”
양평 스튜디오에서 활짝 웃고있는 김홍탁 씨



김홍탁의 연주모습



‘지미 헨드릭스’의 하드 록이 그에게 충격파를 던진 1967년 키보이스를 해산한 김홍탁은 히파이브He5에 합류한다. ‘초원’ ‘정 주고 내가 우네’와 같은 히트곡을 낸 히파이브에서 김홍탁은 우리나라에 단 한 대밖에 없던 ‘깁슨 기타’를 선물받기도 한다. 1970년 히파이브를 해체한 그는 다시 6인조 히식스He6를 결성해 자신의 자작곡 중심으로 활동하다 1972년 돌연 미국행을 결심한다. 역시 음악을 향한 끝없는 욕망 때문이었다. “록 음악의 본고장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낮엔 사업을, 밤엔 ‘이스트웨스트’란 밴드의 리더로 살아가는 삶을 꾸려나간다. 15년 뒤, 그동안 쌓은 음악적 역량으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을 한 단계 높여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 1987년 귀국한 김홍탁은 꼼꼼한 준비 끝에 1996년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음악 고등교육기관인 ‘서울재즈아카데미’를 세운다. 서울예대조차 클래식과만 있었던 시절,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우리나라 실용음악 교육을 정착시키는 대가로 건강이 악화됐다. 서울재즈아카데미가 자리 잡은 2009년, 퇴직과 함께 건강을 위해 양평으로 이사해 지금까지 살아왔다. 음악에 관한 한 그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런 그의 소원이라면 고향 인천에서 멋진 공연을 한번 여는 것이다. “돌아보니 고향을 위해 제가 한 일이 없어요.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인천에서 후배들과 함께 좋은 공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말미, 연주를 한 곡 청했다. 청바지를 입은 백전노장의 뮤지션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무대로 올라갔다. 퍼스트 기타를 연주하는 그의 열 손가락이 전자 기타 위에서 춤을 추었다. 기타리스트의 등 뒤 ‘HAPPY BAND / 567 NLL’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다가왔다.

새해를 시작하는
문화 백신



코로나19 여파가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애석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겨울처럼 잔뜩 움츠러든 문화생활에 작은 안식이 되어줄 1월의 전시를 소개합니다. 백신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그리고 정숙한 관람 예절입니다.

송암미술관 민화 특별전
'어해도, 물의 나라를 노닐다'

물고기를 그린 조선 후기 민화 어해도. 그림에는 민중들의 염원과 희망이 생기발랄하게 나타나 있다. 민중들은 삶이 고될수록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이웃들과 조화롭게 살기를 희망하며 이를 화폭에 담았다.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향한 소망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었다. 물고기를 그린 민화가 액자와 병풍으로 만들어져 혼례와 제례, 환갑 등 집안 행사에 널리 사용됐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민중의 염원이 담긴 송암미술관 소장 어해도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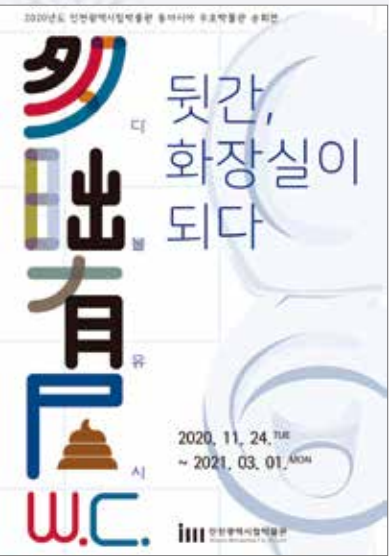
기간 : 1월 24일까지
장소 : 송암미술관 별관 3층 기획전시실
문의 : 032-440-6781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별전
'뒷간, 화장실이 되다'

우리나라 화장실의 변천 과정을 엿본다. 전시는 인천시립박물관과 중국 뤼순박물관, 일본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이 함께 ‘동아시아 삼국의 의·식·주’를 주제로 열고 있는 순회 전시의 일환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동안 한중일 3국의 집 밖에 있던 뒷간이 집 안으로 들어와 화장실이 되는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요강과 요즘은 없어진 채변 검사 봉투 등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볼거리도 풍성하다.

기간 : 3월 1일까지
장소 : 인천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문의 : 032-440-6735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별전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

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최고 무공훈장을 받은 한인 2세, 김영옥.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그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 참전했다. 퇴역 후에는 소수계 아시아인들을 비롯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 노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에 평생을 바쳤다. 이번 전시는 故 김영옥 선생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전쟁 영웅으로, 사회적 약자의 수호자로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온 그의 삶과 가치를 되새긴다.

기간 : 2월 14일까지
장소 : 한국이민사박물관 지하 1층 기획전시실
문의 : 032-440-4707



도시를 보는 작가
'공지선 : 사랑이 넘치는 도시'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가 공지선 작가의 ‘사랑이 넘치는 도시’. 작가는 소비를 부추기는 상품과 광고 사이에서 쉽게 대체되는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에서 도구처럼 소비되는 인간의 이야기를 회화와 설치 작품에 담았다. 상품 광고와 네온사인 속 화려한 이미지를 차용한 작품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자음 ‘ㅇ’을 사랑의 상징인 ‘♡(하트)’가 대신하는 광고의 나열을 통해 인간이 부재하는 도시 안에 넘치는 사랑에 대한 아이러니를 표현했다.

기간 : 1월 17일까지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2층 소암홀
문의 : 032-850-6030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
'우리 동네 Go, Go! 탐험'

인천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흔적을 따라 놀이하듯 이해하는 어린이 체험 특별전이다. 전시는 ‘우리 동네 Go, Go! 탐험 지도’를 주제로 크게 10가지의 구성으로 진행된다. 선사시대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함께, 땅속 탐험, 고인돌 쌓기 등 흥미로운 체험 활동도 마련되어 있다. 코로나19로 기나긴 방학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며 추억을 만드는 색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 : 2월 14일까지
장소 : 검단선사박물관 2층 체험학습실
문의 : 032-440-6797

◦ IMAGE NEWS ◦

01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실현
#탈석탄 정책 추진 본격화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 #세계와 함께 실천 노력

02

계획 수립



#석탄 화력 발전 신규 시설 설치 금지
#연료의 LPG 단계적 전환과 시설 폐지
#저탄소 사회로 전환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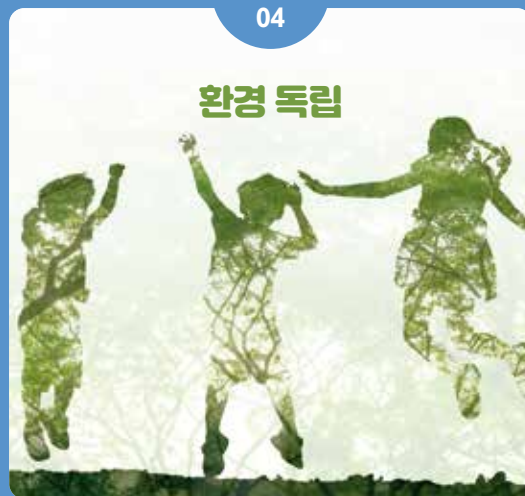
공감 확립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 실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으로 #환경과 경제 함께 성장

04

환경 독립



#인천시 그린 뉴딜 정책 추진
#탄소 중립 노력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 도시 실현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플러스

- + 우리 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 조성에 주력한다.
- +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가 공사를 시작했다.
- + 우리 시와 연세대가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2026년까지 500병상 이상을 갖춘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한다.
- + ‘인천e음’ 카드 결제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혜택이 올해도 계속된다.
- + 우리 시는 각종 행정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인천e한눈에’ 웹사이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 +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시는 인천적십자병원과 인천백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해 164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 + 우리 시가 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주거와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2025년까지 공급한다.

◦ NEWS BRIEF ◦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 만들기’ 스타트

우리 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 조성에 주력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인천의료원,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5개 종합병원은 장례식장 이용객에게 친환경 다회용기 무료 제공 또는 다회용기 사용 권장 등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12월 30일 인천시의회, 10개 군·구, 시교육청,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 등과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품 제로 공공청사’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반입 전면 금지, 일회용품 사용 배달음식점 이용 금지, 회의·행사 개최 때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개별 쓰레기통 없애고 통합 분리수거함 설치 등을 추진한다.

시 자원순환과 032-440-3561

인천e음 카드, 올해도 최대 10% 캐시백 제공

우리 시는 지역 화폐 ‘인천e음’ 카드 결제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올해도 계속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

각해지자, 최대 4%였던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최대 10%로 확대 적용했는데, 올해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들은 인천e음 카드로 월 50만원 이하 결제 시 캐시백 10%, 월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결제 시에는 1%의 캐시백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2

영종~청라 잇는 제3연륙교 14년 만에 첫 삽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 공사가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제3연륙교 종점부에서 교량 착공식을 개최했다. 2006년 인천 영종·청라국제도시 택지 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사업비를 반영해 5,000억원을 확보한 지 14년 만이다.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인천시 중구 중산동(영종하늘도시)에서 서구 청라동(청라국제도시)을 연결하며 전체 길이 4.67km(해상 3.5km·육상 1.1km), 왕복 6차로로 건설된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3개 해상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보도·자전거도로·전망대 등이 설치돼 다리 위에서 서해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체험관광형 문화공간이 마련되며,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과 운행·도로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시 영종청라개발과 032-453-7622

인천시정을 생생하게 ‘인천e한눈에’

우리 시는 각종 행정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인천e한눈에’ 웹사이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이트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 교통·대기·수질 현황, 시설 안내 등 4,000여 종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볼 수 있다. 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포함한 6개 분야 66개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과 실적도 살펴볼 수 있다. 웹사이트는 개인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업무 정책 포털과 빅데이터플랫폼 등 데이터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보고·회의 등을 통해 생산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축적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시는 인천e한눈에 웹사이트를 매년 업데이트해 어르신, 영유아, 여성 등 관련 분야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도 확대할 방침이다.

※ 인천e한눈에 웹사이트 주소 : on sight.incheon.go.kr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실 032-440-2343

감염병 전담 병원 2곳 추가 지정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시는 인천직적사병원과 인천백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해 164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추가 병상 확보로 인천의 감염병 전담 병상은 총 437개 병상으로 늘어 병상 대기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고령·치매 환자가 많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내 감염 확산을 우려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시 감염병관리과 032-440-7831

강화·옹진 섬마을에도 초고속 통신망

우리 시는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섬마을에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말, 웅진군 연평면 소연평리와 백령면 가을리 등지에 설비를 설치했으며, 이곳에서 고품질 영상통화나 고화질 인터넷(IP)TV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가구 수가 적은 농어촌 섬마을에 광케이블과 마이크로웨이브(무선장비) 등 통신 설비를 설치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강화군 188개 리와 웅진군 78개 리 전체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됐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032-440-3012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 본격화

우리 시와 연세대가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2026년까지 500병상 이상을 갖춘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8일 연세대, 송도국제화북한단지개발주식회사(SPC)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이번 2단계 조성사업 협약에 따라 송도 11공구 토지 34만2,219m²를 SPC에 제공하고 SPC는 이곳 일부에 아파트·주상복합 등을 지어 얻은 수익금으로 캠퍼스를 건립한다.

협약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함께 송도 11공구에 연세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인력 1,000명 이상을 유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 투자유치기획과 032-453-7333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착공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FC의 축구센터 건립사업이 본격화된다.

우리 시는 소속 프로 선수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 과 유소년 축구선수 훈련·육성 체계화를 위해 지난 12월 10일 센터를 착공했다. 연수구 선학동 선학체육관 인근에 들어서는 인천FC 축구센터는 지상 3층, 전체 넓이 3,263m² 규모로 2022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128억6,000만원인 인천FC 축구센터는 시청 각실·식당·체력단련실·전력분석실·샤워실, 유소년 코치실·치료실, 2인실 숙소 14개, 4인실 숙소 16개 등을 갖추게 된다. 또 유소년 축구를 위한 인조잔디 구장 1면을 우선 조성하고 향후 천연잔디 구장 1면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 체육진흥과 032-440-4093

뿌리산업 일자리 1,338개 창출

우리 시는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 고용안정에 선 제대응해 지난 한 해 동안 1,338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뿌리기업 도약, 더 좋은 내일(job)’이라는 프로젝트로 2024년까지 5년간 총 477억원을 투입, 총 7,75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포스코철강솔루션, SK인천석유화학 등 대기업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춘 뿌리코디제도를 운영해 뿌리기업에 대한 기술 애로사항 63건을 해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는 중장기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전략 수립을 위해 인천 뿌리산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뿌리산업 육성과 고용전략 연구용역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맞춤형 뿌리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33

노인일자리 정보 한눈에, 정보시스템 구축

우리 시와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는 전국 최초로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은 어느 지역·어느 기관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또한 모집 중인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한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는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가 새겨진 거리 현수막, 스티커, 안내문,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 QR코드를 홍보해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7



‘탈석탄 동맹’ 가입 이어 ‘탈석탄 금고’ 선언

우리 시가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 연료 퇴출을 위해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데 이어 ‘탈석탄 금고’도 선언했다. 탈석탄 금고는 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를 선정할 때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넣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온라인으로 인천지역 8개 구와 합동으로 ‘탈석탄 금고’ 정책 동참을 선언했다. 시와 8개 구는 지자체의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때 평가 지표에 ‘탈석탄’ 투자 항목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8592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20호 공급



우리 시가 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주거와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2025년까지 공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0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공모에서 다른 3개 지방자치단체(대구시, 경기도 평택시, 충남 천안시)와 함께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다.

시 건축계획과 032-440-4743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



우리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차단을 위해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축산농가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강화군의 주요 진입도로인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거점소독창소와 통제소 외에도 섬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소독을 실시했다. 계양구에서도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소를 추가 운영해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가금농장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농장 4단계 소독요령,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매일 전화 예찰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4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3개소 선정

우리 시 항구 3개소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서 선정됐다. 아울러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으로도 3개소가 선정됐다.

올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곳은 중구 삼목항, 강화군 초지항, 옹진군 서포리항 총 3개소다. 또한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강화군 아차항과 하리항, 옹진군 승봉리항 3개소가 선정돼 3년간 총사업비 28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확보하게 됐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내 300여 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시 수산과 032-440-4852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우리 시는 인천 시내버스 노선을 지난해 12월 31일 기점으로 전면 개편했다. 197개 노선 중 변경 83개, 폐지 25개, 신설 32개 등 140개 노선(71.1%)의 개편 과정을 거쳐 총 205개 노선 체제로 새롭게 바꿨다. 인천 시내버스 노선의 대규모 개편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이번 노선 개편에서 교통카드와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버스 수요를 분석하고 아파트 입주와 도로 계획 등 미래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도심 골목을 달리는 ‘인천e음버스’와 승객이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해 교통 취약지역을 최소화했다.

시는 대규모 노선 개편에 따른 각종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 21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651

인천2호선 검단 연장·부평연안부두선·송도트램 등 추진

우리 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정하면서 ‘인천2호선 검단 연장’과 부평·연안부두선, 송도트램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연말 10개 군·구와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5년마다 수정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시가 결정한 8개 노선의 우선 투자 순위는 인천2호선 검단 연장과 부평·연안부두선, 송도트램,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1단계,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제물포·연안부두선 순이다.

또 미래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후보 노선으로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과 동인천·청라선, 영종트램 전 구간, 자기부상철도 확장 등 4개 노선을 제시했다.

시 철도와 032-440-3913

◦ COUNCIL NEWS ◦

‘사랑의 쌀’ 기부금 전달



인천시의회가 ‘사랑의 쌀’ 기부금 1,387만원을 지난해 12월 17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기부금으로 쌀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 365가구에 10kg짜리 한 포씩을 전달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때”라며 “쌀과 함께 온정도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2020년도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활동 유공자에 대해 인천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받은 이승화(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대리), 이상연(인천교육사랑회 대표), 서정희(KB국민은행 경인 1본부 본부장) 3명은 인천기후변화대응 실천연대 소속이다. 인천기후변화대응 실천연대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민간산학·공기업이 연대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약속하는 지역주민에게 손수건을 무료 배포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크리스마스실 성금 전달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8일 2020년도 크리스마스실 seal 증정식을 갖고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결핵퇴치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인천시의회 의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며 “크리스마스실 모금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결핵 예방과 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지원 사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에서는 결핵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실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결핵 퇴치를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기획행정위, ‘사회성과연계채권 간담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사회성과연계채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의 개념과 사례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공공·복지사업 수요는 급증하지만 재정은 부족한 정부의 고민과 사회공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지만 가용재원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의 고민, 공공을 위해 투입한 재원으로 처음 의도한 성과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알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기회가 됐다.

건설교통위,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인천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교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기관별 4명씩만 참석하는 형태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교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의 회장단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신규 발주사업이 줄어드는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업체의 원·하도급 참여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 1년 5개월 연장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위원회를 열어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당초 2021년 1월 30일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5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연장은 자치분권의 법적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관련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 열어

인천시의회 환경기반시설연구회는 지난 12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향후 해결 방향 등에 대해 열띤 논의도 이뤄졌다. 시의회는 이날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 회수 차원에서 건조 분말 형태로 가공해 사료나 퇴비로 이용하고 있지만, 많은 가공비가 들어가고 수요가 저조하다”며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시외교연, 인천 도시외교 전략수립 세미나



인천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는 지난해 12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도시외교 2.0 전략수립’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0년 도시외교연구회를 마무리하고 2021년 도시외교 2.0 전략수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도시외교연구회 연구용역 수탁과제 최종 보고를 겸한 이번 세미나에서 김수한(인천연구원) 박사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으로 인천시 도시외교 기본 계획의 체계적 수립, 인천 도시외교 방향 및 과제 설정을 위한 논의 테이블 조성 및 운영, 2021년 지역 개최 국제포럼의 점검 및 개선, 인천시 인재개발원 도시외교 관련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제안했다.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인천의회저널이 시민이 뽑아준 새 이름 <인천앓의회>로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더욱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인천앓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앓의회>는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7~8
웹진으로 보기 www.icouncil.go.kr/journal

인천의 자연,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이달의 드로잉

자연 닮은, 자연 담은 덕적도

‘환경특별시’ 인천은 168개 섬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삶에 심포를 적는 여유와 다채로운 매력이 살아 숨쉬는 인천의 자연.
인천 작가의 스케치에 시민 여러분의 색과 빛을 입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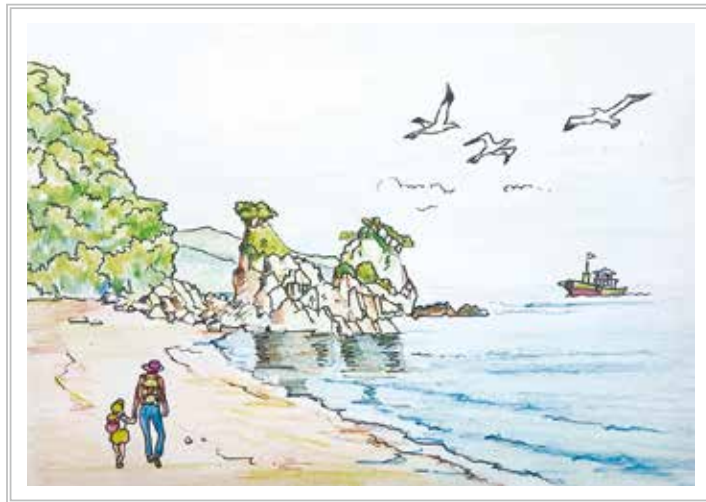


천혜의 자연을 품은 인천 168개의 섬. 그중 덕적도는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다.
2015년, 전남 조도와 거문도, 충남 삽시도, 제주 추자도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으로 선정된 이후,
이듬해 으름실마을에는 풍력·태양광·수력발전 등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이 구축되며 에너지 자
립 섬을 실현해 가고 있다. 그림은 덕적도 북리 해변의 풍경. 자연 그 자체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인천
의 섬들이 에너지 자립을 통해 내실을 갖춰가는 2021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안성용 작가



1958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11회의 개인전을 열었으
며 한국구상대제전, 대한민국현대인물화가회전, 제
물포예술제 등 크고 작은 전시에 참여해 작품을 선보
였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현대인물화가회
등에서 활동 중이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근로
복지공단, 인천가정법원, 연수구청 등에 작품이 소장
되어 있다.



안성용 작가의 채색 가이드

▷ 2020년 12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미순 계양구 봉오대로



신예은 남동구 논고개로



홍경은 미추홀구 주승로



홍건희 서구 검단로



유윤곤 연수구 해돋이로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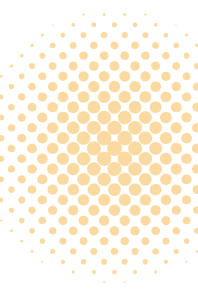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기간 : 2021년 1월 20일까지 문의 :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INFO BOX ◦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19,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이 연장 시행됩니다.

적용 기간 : 1월 4일~17일

주요 조치사항

- 모임·행사 : 전국 실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파티룸, 야외스크린골프장 :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원칙적 집합금지) :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 운영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등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 겨울스포츠시설 : 인원제한 강화 및 부대시설 집합금지
- 종교시설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모임·식사는 금지

*상세 내용은 ㉡ blog.naver.com/incheontogi 참조

02 코로나19 정보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현황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안내 정보’ 모바일서비스 내역

- 쉽고 빠른 정보 검색
- 제공 정보 :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마스크 착용 관련 정보
- 설치 방법 :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안내’ 검색 후 설치
- 코로나19관련 개편정보 제공

제공 정보 : 거리 두기 개요, 단계별 실행방안, 주요 시설 활동 조치사항 등 안내

접속 방법 : ㉡ ncov.mohw.go.kr

문의 : 시 보건의료정책과 ㉠ 032-440-7828

03 새해, 새로운 배움으로 시작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가 2021학년도 국비 지원 직업 훈련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직종 : 전기시스템제어, 스마트제품품질직종, 스마트물류&로봇

교육 기간 : 3월 2일부터 1년

모집 기간 : 1월 22일 오후 5시까지

면접 일자 : 1월 28일

과정 특징 : 전액 국비 지원(무료) 훈련 과정, 훈련 장려금 지급(출석 기준 만족 시), 원거리 통학생 대상 무료 기숙사 제공

참고 : ㉡ www.kopo.ac.kr/incheon

문의 : 한국폴리텍대학 ㉠ 032-510-2101~5

04 수도 요금이 평등해집니다

우리 시가 2021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 단일제’를 시행합니다.

시행 시기 :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변경 내용 : 기존 3단계로 달라지던 누진 요금을 단일 요금으로 변경(사용량 구간에 관계없이 1m³당 470원 적용)

좋아지는 점

- 가구 구성원이 많으나 적으나 요금 단가 동일 적용
 - 요금 계산이 간단해 누구든지 이해하고 설명하기 쉬움
- 문의 : 미추홀 콜센터 ㉠ 120

05 맑은 공기를 지켜주세요

우리 시가 푸른 하늘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시행 기간 : 2021년 3월

주요 내용 :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 운영,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 석탄 화력 가동 축소, 전력 수요 관리 강화,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농촌 영농 폐기물·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 집중 관리 도로 운영,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대응 강화, 다량 배출 사업장 오염 물질 저감 목표 관리제 실시, 건설 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 시스템 운영

실천 사항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 친환경 운전 습관(공회전, 과속, 과적 금지), 폐기물 배출량 줄이기,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20℃) 유지, 불법 소각 및 불법 배출 신고

문의 : 시 대기보전과 ㉠ 032-440-3520

06 새로운 서비스로 시민시장과 소통해요

우리 시가 주요 정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과의 협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e한눈에(기존 온라인 시민시장실)’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개시하고, 오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접속 주소 : ㉡ on sight.incheon.go.kr

접속 방법 : ‘대표 홈페이지(메인) 및 시민시장실’ 메뉴에 바로가기 클릭

서비스 내용 : 핵심정책, 시정지표, 경제상황판, 도시현황 등 이벤트 실시

기간 : 1월 10일까지

경품 : 커피 기프트콘(100명)

참여방법

① 인천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e한눈에’ 사이트 방문

② 마음에 드는 화면 캡처

③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응원 댓글 남기기

경품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1월 18일 예정

문의 : 시 데이터혁신담당관 ㉠ 032-440-2344

07 주택 화재, 미리 대비하세요

화재에 취약한 주택의 낡은 실내외 마감 재료와 설비를 교체하거나 화재 피난 시설과 소방 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주택 성능 보장 지원 사업(유자)’이 시행됩니다.

대상 : 모든 주택 중 화재 취약 조건(가연성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구조)에 해당하는 시설

지원 기준 : 총공사비 4,000만원/호,

금리 1.2%(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 범위 : 화재 예방·감지·소화(소방)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비용 지원

- 1층 필로티 천장 단열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
-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드라이비트, 단열재) 교체
- 방화 구획(방화벽, 내화 구조), 방화 셔터, 피난 시설(피난 통로, 대피 계단)
- 화재 위험 요인이 있는 낡은 설비 교체·정비(보일러, 조명, 가스 기기 등)

- 화재 예방 시설(감지기, CCTV, 제어반)과 소방 시설

- 실내 방염 재료 사용

문의 :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88-5000



08 더 많은 이들이 보호받도록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 부모가 포함된 경우
*단, 고소득(연 1억원), 고재산(9억원)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지속 적용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참고 : ㉠ 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09 내 집 앞 쌓인 눈은 내가 치워요

가족과 이웃이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직접 치우는 것이 어떨까요.

범위
-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 시설물의 지붕 : 최상층의 지붕 면의 구간,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면의 구간
시기 :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눈이 그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문의 : 시 자연재난과 ㉠ 032-440-3353



10 서부여성회관 교육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및 연장에 따라 서부여성회관에서 진행하는 ‘2021년 제1기 사회 교육’ 개강 일정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강일 : 1월 11일
교육 기간 : 1월 11일~3월 27일(11주)
접수 기간 : 1월 15일 오후 6시까지(추가 모집 포함)
*개강 전 적정 인원 미달 시(모집률 60% 미만) 미운영 (1월 7일 오후 5시 기준)
문의 : 서부여성회관 ㉠ 032-458-7360

11 양식어 사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배합 사료 가격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1년 양식어가 배합 사료 구매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 : 1월 26일까지
신청 방법 : 서류 지참해서 방문 신청
접수 기관
- 인천 지역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1월 4일~26일)
- 강화 지역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강화지소 (1월 13일~14일)
*기간 내 강화지소 방문이 어려울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방문
지원 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지원 한도 : 어가(법인)당 최대 지원 한도 2억원
참고 : ㉠ www.incheon.go.kr/susan/index
문의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4

12 시린 역사도 기억되어야 하기에

인천문화재단 문화유산센터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과 1·4후퇴 당시 인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합니다.

전시 :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_ 인천 사람들이 겪은 6·25전쟁
기간 : 1월 20일까지
장소 : 인천시청역 지하 열린 박물관
내용 : 새롭게 발굴된 인천 관련 6·25전쟁 사진
비고 : 관람 시간 제한 및 관람료 없음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 032-440-6759

13 다양한 인천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우리 시의 생생한 소식을 함께 발굴·전달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기 위해 참신하고 활동적인 영상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 1월 22일까지
모집 인원 : 15명
모집 대상 : 인천시 주요시책, 즐길 거리, 볼거리 등에 관심과 애정이 있으며, 영상콘텐츠 기획·촬영·편집이 가능한 사람
활동 기간 : 위촉일 ~ 2021년 12월
활동 내용 : 인천시 관련 미디어(영상) 콘텐츠 제작 활동, 월 1회 네트워킹(간담회), 전문가 교육, 팸투어 등
지원 방법 : ㉠ icmc@huroin.com 제출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 www.incheon.go.kr 내 새소식 참조
결과 발표 : 1월 27일 인천시 공식 블로그, SNS 채널 및 개별통보
문의 :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 032-440-3033

14 2021년 도서관 문화 행사

[청라호수도서관]
작가와와의 만남 ‘왜 발버둥쳐야 하는가?’
일시 : 1월 16일 오전 10시~낮 12시
장소 :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대상 : 청소년 및 성인 20명
문의 : 청라호수도서관 ㉠ 032-563-8126

[미추홀도서관]
집콕! 방구석 여행 4탄
‘가우디로 만나는 바르셀로나’
일시 : 1월 12일 오후 7시~9시
장소 :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대상 : 청소년 및 성인 20명
문의 : 미추홀도서관 ㉠ 032-440-6666

[마전도서관]
독서 교실 ‘우리말 탐험대’
일시 : 1월 18일~21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카카오 라이브톡 활용
대상 : 초등학생 3~4학년 20명
문의 : 마전도서관 ㉠ 032-590-2833

새 책 소개

삶의 터전,
부평시장 I·II



270쪽
펴낸 곳 부평역사박물관
문의 032-515-6471

새 책 <삶의 터전, 부평시장> I·II는 부평 사람들과 회로애락을 함께한 ‘부평시장’과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다. 부평자유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부평광시장, 부평문화의거리는 나름의 경계가 있으나, 대개 사람들은 이를 통칭해 ‘부평시장’이라고 부른다. 부평시장은 부평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부평의 공업화로 인해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부평역 인근에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이후 점차 공설 시장화됐다. 부평 4공단이 들어서며 늘어난 공단 노동자들은 진흥종합시장에서 생활용품, 부평종합시장에서 갖가지 먹거리를, 부평광시장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채소를 구매한다. 대형 마트의 등장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부평문화의거리가 탄생했고, 최근 평리단길에 새로운 명소가 떠오르는 중이다.

인천을 감각하는
8인의 대화



240쪽
펴낸 곳 인천문화재단
문의 032-455-7134

<인천을 감각하는 8인의 대화>는 인천의 원로 8인의 지혜와 경험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인천의 큰 어른인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김용구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 인천 교육계 원로 심재갑 선생,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최장수 원장으로 재직했던 이인석 전 인천연구원 원장, 민중미술가인 이종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문학평론가인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 호인수 인천교구 신부가 그들이다. 원로 8명에게 듣는 인천의 이야기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추는 삶의 귀감이 되는 내용이 많다. 다채롭게 풀어놓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살아 있는 역사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고 인천과 깊은 연관을 맺으며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이들이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인터뷰를 읽는 것만으로도 현재를 이겨나가는 힘이 된다.

“

시는 나의 본능, 독자들과 함께 읽는 즐거움 만들어 갈 것

”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현대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다. 시집 <반성>이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외설 경고를 받은 것이다. 정작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체화된 개인의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은 그의 시를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도사린 메타포로 해석했다. 그럴 수도 있었다. 문학은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김영승은 이후 본의 아니게 전설의 시인, 신비주의자로 알려지게 됐다.

지난 20여 년간, 시인은 시 쓰기와 강의에 전념해 왔다. 연수문화원에선 ‘김영승의 문예 창작 특강’과 ‘해설과 함께하는 한국 현대시 100년의 명시 감상’을, 부평문화원에선 ‘시 창작’과 <시경집전>을 교재로 ‘동양 고전 강독’을 해왔다. 강의가 없을 때는 연필을 꺾꺾 눌러 원고지를 채워나갔다. 그렇게 써 놓은 작품이 수만 편에 이른다.

<굿모닝인천> 연재에 맞춰 새해 그는 우리나라 ‘빅 4 출판사’에서 시집을 발간한다. <너무 슬프게는 하지 마세요>(창작과 비평사), <꿈틀거리는 자의 애인>(문학과 지성사), <희망>(민음사)이 그것이다. 문학동네에서도 시집이 나올 예정이다. 어떻게 한번에 이런 많은 시집을 발간하게 된 걸까. “시집 발간을 위해 새로 쓴 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써온 시의 출판을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내게 된 것뿐이죠.” 시인은 “그동안 많은 출판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섣뜻 응할 수가 없었다”며 “출판사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오랜 숙제를 끝낸 것 같아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시인은 앞으로 시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시를 쓰는 것은 나의 본능입니다. 10대 때부터 좌우명으로 삼아온 데카르트의 ‘잘 숨은 것이 잘 산 것이다’란 문구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문학의 원년은 육당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인천을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한 문학이 많이 나왔지요. 물론 좋은 인천 작가들도 많았고요.”

인천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김영승이 새해를 <굿모닝인천>과 함께 시작한다. 2021년 1월부터 <굿모닝인천>에 ‘김영승의 시선(詩選)’ 코너를 연재하는 김영승(63) 시인은 “인천 시민들과 함께 장르를 초월한 문학 작품 속의 인천을 읽고 인천의 문인들을 만나볼 것”이라며 웃음 지었다. 이번 기획은 김영승이 바라보는 문학과 문인 이야기다. 문학 작품에 등장한 구절을 소개하고 이를 바라보는 시인만의 철학과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대 문학 탄생 110년이 흘렀습니다. 무수한 작품과 작가들이 탄생하고 사라져 갔지요. 깊이 있는 내용을 아주 쉽게 써보려고 합니다. 하하.”

인천 유동에서 태어나 제물포고, 성균관대 철학과를 나온 김영승은 1987년 시집 <반성>을 발표하며 세상을 강타한다. 국내 우수 매체는 물론이고 세계적 언론인 AP통신사까지 ‘천재 시인’의 탄생을 대서특필했다. 그

근대건축전시관으로 부활한 일제 식민 침탈 본산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겨울 오후, 화려한 석주(돌기둥) 장식이 돋보이는 건물에 발을 들여놓는다. 손 세정제와 방명록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하루에 20명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어요.” 안내자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해준다.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중구 신포로23번길 77)에 가면 존스톤 별장, 알렌 별장, 오례당 주택과 같은 지금은 사라진 개항장의 옛 건물들을 볼 수 있다. 1전시실은 개항 이후 인천항의 모습을, 2전시실은 근대건축물의 영상과 사진, 3전시실은 모형과 디오라마, 4전시실은 일제강점기 은행 이야기를 각각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 네 곳을 도는 동안 한 세기 전 화려했던 개항장의 모습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0호’인 근대건축전시관의 본래 이름은 ‘일본제18은행 인천지점’이었다. 건물 외관은 화강암과 벽돌·돌·타일과 콘크리트 블록재를 섞어 쌓은 모르타르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붉은 벽돌을 쌓은 모습이다. 110년이 넘는 이 근대건축물은 석조 건물의 외관을 갖춘 고전적 절충주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일본제18은행은 일본 나가사키(長崎) 상인들이 1877년 세운 국립은행으로 인천지점은 1890년 10월 해외에 세운 최초 지점이었다. 일본인들은 은행을 세우면서 설립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은행이름을 지었다. 처음에는 출장소였으나 1903년 지금의 자리에 일본식 모임지붕 형식으로 건축했다. 식민지 조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식민 침탈의 본산이었던 이 은행은 1936년 조선식산은행으로 이름을 바꾼다. 1906년 6월부터 지방에 설립한 6개 농공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 조선식산은행은 일본인의 직접적 투자와 경영에 의존하는 대형 개발 은행이었다. 6·25전쟁 이후 이 은행은 상공은행과 신탁은행이 합병한 ‘한국흥업은행’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후 시간이 흘러 개인이 소유하면서 한때는 ‘열애’란 고급 요정으로, 한때는 중고 가구를 파는 도매상 건물로도 쓰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신포동이 인천의 중심지였으므로 근대건축전시관 주변엔 고급 룬살롱과 고급 식당이 즐비했다. 지금은 분위기가 좋은 카페들이 하나 둘 들어섰으며 문화공간과 식도락가들을 유혹하는 맛집들이 옛 유흥 주점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인천 지명

추억 속 되살아난 ‘참외전거리’

1999년 인천시가 시내 주요 도로 여러 곳의 이름을 새롭게 지을 때 송월사거리~동인천역 앞~배다리~송의삼거리 사이 도로에 ‘참외전거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도로가 예전에 ‘참외전거리’ 또는 그 발음이 조금 변한 ‘채미전거리’라 불리던 곳을 지나기 때문이었다. ‘채미’는 ‘참외’의 경기도·황해도 지역 사투리다.

예전의 참외전거리는 지금의 동인천역 앞에서 배다리에 이르는 경인철도 주변 거리를 일컫던 말이다. 지금도 과일 등을 파는 청과물 가게가 남아 있는 이 길은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된 뒤 지금의 송의동·도원동·율목동 등지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 생긴 축현역(지금의 동인천역)을 쉽게 오가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과수원이 많았던 송의동·용현동 등지에서는 거리가 가깝고, 시내의 중심지이기도 한 이곳으로 여러 가지 과일을 내다 팔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길 주변에는 여러 청과물 가게가 생겼다.

특히 여름이면 서울 유희동에서까지 달기로 소문난 오릿골



채미나 우리의 재래종 청채미, 속이 노란 감채미 등 많은 참외가 실려 들어와 길거리 빈터에 무더기로 쌓인 채 팔리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참외전거리’인데 ‘채미전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1920~1930년대에 전성기였다는 이곳에는 큰 규모의 청과물 시장도 들어서 인천 청과물 시장의 대명사로 통하기도 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농촌이 황폐해지고 청과물 생산이 줄어들자 참외전거리도 차츰 스러지기 시작했다. 아직 몇 곳의 청과물 가게가 남아 있다고는 해도 참외전거리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영 사라질 형편이었다. 그것이 길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향토사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 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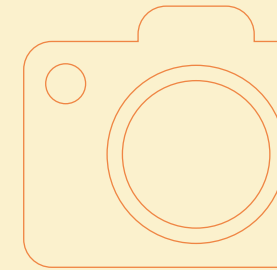
1883. 1. 1 인천 개항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 인천 개항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은 일대 사건이었다. 근대화의 거센 물결은 인천에 최초의 역사를 뿌리내리게 했다. 이후 1974년, 초대형 갑문 시설이 완공된 인천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하며 국가 경제를 떠받쳤다. 최대 5만 톤급 선박의 입출항, 동양 최대 규모의 갑문식 독dock 등은 오늘날 인천항의 위상을 가능하게 한다. ‘신항’이라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싣고 세계를 향해하고 있는 인천항. 2021년에는 인천의 바다가 더 큰 세상과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그때, 1월의 인천은...

1936. 01. 11	인천체육회 창립
1937. 01. 11	인천상공협회 창립
1946. 01. 26	인천관측소, 국립관측소로 개칭
1948. 01. 25	수인선 운행 재개
1958. 01. 17	인천교 준공
1985. 01. 12	승기천 복개 공사 준공
1985. 01. 29	테레사 수녀, 답동성당 방문
1990. 01. 17	인천종합문화회관 기공

2021년, 희망 싣고 열차 출발합니다~



사연 배윤경 인천교통공사 기관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송도달빛축제공원역 구간을 운행하는 인천교통공사 기관사 배윤경입니다. 당연히 여겼던 일상이 코로나19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열차 안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열차 안 분위기가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저를 포함해 수많은 직원이 열차 운행을 준비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저희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모든 직원은 꼼꼼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사의 코로나19 감염은 열차 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승강장과 객실도 시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근심과 걱정은 열차에 모두 두고, 희망과 행복만 가지고 내리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웃는 모습으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 배윤경 기관사는 전국 최초 여성 우수 기관사, 최연소 우수 기관사로 선발된 자랑스러운 인천의 인재입니다.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보내실 곳 : goodmorningic@naver.com 문의 :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5



짜장면 탄생 130년



짜장면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난 옛 공화춘 건물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짜장면 맛은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았다. 아니었다. 중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1990년대 중반, 중국음식점별로 짜장면 맛이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후각을 강하게 자극하는 냄새와 쫄깃하고 달콤한 식감, 물 흐르듯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부드럽고 따뜻한 면발. 차이 나타운과 신포동 곳곳에서 맛보는 짜장면 맛은 입학·졸업식 때 학교 근처나 동네에서 먹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났다. 식당마다 킬러 콘텐츠도 한두 개씩은 갖고 있었다. 깐풍기를 잘하는 집, 고기 튀김이 맛있는 집, 만두소가 특별한 집 등등 저마다의 색깔이 선명했다. 연태고량주나 이과두주를 곁들인 중국요리를 먹을 때마다 ‘인생 뭐 있어? 이게 행복이지’란 말이 절로 떠올랐다. 신포동, 선린동(차이나타운)은 우리나라 최초로 짜장면이 태어난 도시다웠다.

짜장면은 산둥 지방 출신 노동자인 쿨리coolie(苦力)들로부터 비롯됐다. 개항 이후인 1890년대 인천항에서 하역 노동을 하던 쿨리들은 별다른 재료 없이 수타면에 춘장을 얹어 비빔 고향 음식 자장미엔(炸醬麵)을 즐겨 먹었다. 인천항과 쿨리를 주목한 사람이 산둥성 출신 위시광(于希光, 1886~1949)이다. 그는 22세이던 1907년 인천으로 와 ‘산동회관’이란 중국식 숙박 시설 객잔을 열어 중국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1912년 청조 시대가 끝나고 중화민국이 탄생하면서 위시광은 가게 이름을 공화춘共和春으로 바꾼다. ‘공화국의 봄이 왔다’는 의미였다. 나날이 번창하며 1917년 지금의 ‘짜장면박물관’ 자리에 있던 건물을 매입한 그는

공화춘을 유명한 중화요리점으로 성장시킨다. 공화춘은 그렇게 1983년까지 운영되다 화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화교정책 등 몇몇 이유로 문을 닫는다. 한동안 빈집으로 방치된 건물을 매입한 곳은 중구청이다. 2010년 공화춘 건물을 매입한 중구는 리모델링을 통해 2012년 우리나라 최초의 짜장면박물관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공화춘은 사라졌으나 그의 외손녀는 하인천역 부근에서 ‘신승반점’이란 식당을 운영하며 공화춘의 계보를 잇고 있다.

짜장면이 대표적 한국 음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때는 산둥 출신 왕송산이 ‘영화장유’란 식품회사를 차려 캐러멜을 혼합한 ‘사자표 춘장’을 개발한 1948년부터다. 6·25전쟁 직후 원조받은 밀가루와 1964~1977년 국가적으로 진행한 ‘혼·분식장려운동’이 만나면서 짜장면은 가장 대중적인 음식으로 사랑받는다. 지금도 변함없이 국민 사랑을 받는 대한제분 ‘곰표 밀가루’의 탄생도 이 시기다. 짜장면 가격은 물가의 바로미터이기도 했다. 쌀 한 가마니 가격이 3,010원이던 1960년대 초 짜장면 값은 15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중반 140원, 1980년대 350원, 1990년 초 1,300원에서 2000년대 3,000원으로 꾸준히 올라 지금은 한 그릇에 4,000~5,000원 정도 한다.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330배가 오른 셈이다.

소띠 해인 신축년辛丑年 2021년. ‘출출할 때 먹는 짜장면 한 그릇’ 같은 행복을 인천 시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인천시는 2021년을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갈 것이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의 태양이 솟았습니다.

새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 동력으로 새롭고 안정된 미래를 향해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보다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길 희망합니다.

이글거리는 저 신축년의 태양에게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